월요광장

매일이 어린이날

정유진
코리아컨설트 대표

내가 사는 동네에는 늘 아이들과 청소년으로 붐비는 곳이 있다. 바로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아이들, 교복과 체육복을 입은 청소년들 그리고 그들을 픽업하는 차량들로 늘 혼잡한 거리에는 자기 몸집보다 큰 책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는 유치원생 같은 작은 아이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비단 나만 볼 수 있는 동네 풍경이 아니다. 어느 동네마다 이런 매일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닌 게 아니라 매년 5월이면 가정과 교육 현장 그리고 사회를 향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해마다 조사하고 발표해 온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나아지고 있는 걸까?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전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했던 아동의 삶 만족도 조사 결과와 매칭되는 기사들은 '어린이 행복 지수 OECD 국가 최하위' 등으로 제목마저 모두 같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숙제·시험·성적 등 학업을 다룬 기사들도 같은 기사로 착각할 만한 각기 다른 기사들이다.

성적과 차별 탓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아이들이 늘고, 행복해지려면 돈이 무조건 우선이라고 응답하는 아이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 주는 참담한 일이다. 이는 사회나 부모가 암묵적으로 돈이 최고라는 여기는 걸 여실히 보여 주며, 그러한 어른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다. 유년 시절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낀 아이들은 청소년을 거쳐 어른이 되면 어떤 가정을 원할까? 그래서인지 부모가 되고 싶다고 여기는 기혼 부부가 최근 더욱 급격하게 줄어드는 통계는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0여 년 전 UN에서 만장 일치로 채택된 아동 권리 협약 31조 '놀 권리'에 관한 내용이다. 협약에는 한국도 함께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한 협약을 지키지 않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모가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조치도 취하지 못한 셈이다. 한국 아이들은 이런 놀 권리를 누리기는커녕 여전히 사회와 부모로부터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만 할 것을 강요받았다.

학교 정규 수업에서 국어·영어·수학 등의 과목과 더불어 죽음과 행복 등의 과목이 생긴다면 어떨까? 몇 년 전 호주에서는 죽음 교육을 국어·수학 외 정규 필수 수업 과목으로 책정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청소년은 죽음을 실감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아이들이 진정한 삶과 죽음에 대해 가족과 소통하고 훗날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호주에서 실제 죽음 수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주목할 점은 과거에 비해 호주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들을 위해 바로 행동을 취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호주와 같은 죽음 외에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과목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바로 '행복' 말이다.

사회와 부모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며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 주고 있다. 동화 작품 '행복한 왕자'를 쓴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는 "아이들을 좋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The best way to make children good is to make them happy.)" 라고 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어버이날·부부의날이 있는 5월, 이미 어린이날이 지났으니 마음이 놓이는 어른도 있다. 하지만 일년 중 그 하루를 뺀 나머지 364일에도 아이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매일이 어린이날이여야 한다. 그저 어린이날 하루 선심 쓰듯 학원을 쉬게 해주고 특별한 선물이나 이벤트로 어린이임을 기념해 주는 날이 아닌, 아이들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어린이를 위한 날이 날마다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지켜줘야 할 아이들의 권리임을 잊지 말자.

수필의 향기

열 명의 부인

박용수
수필가·광주동신고 교사

친구가 집을 나왔단다. 좀 심각했다. 주말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문제로 다퉜단다. 아내는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낯을 붉힌다고 투덜거린다.

"너 집사람 회사 다니잖아?"

내가 되묻는 말에 녀석이 "뭘? 누구나 직장 다니고 돈 벌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자기도 집안일 다 한다는 것이다. "회사 다니지, 설거지 도와주지, 손주 돌보지…." 줄줄 꿴다.

"너, 조기 축구 하지, 당구 치지, 술 마시지, 담배 피우지, 그러고도 시간이 남아?"

내 묻는 말에 좀 미안했는지 뻘쭘한 표정이다.

네가 슈퍼맨도 아닌 주제에 무슨 슈퍼우먼을 바라느냐고 했더니, 무안했는지 술잔만 든다.

아마 부모님 찾아뵈자는데 반대할 아내는 없을 것이다. 다른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 아내는 마지막 보루로 그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련만 친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화산처럼 무언가 불만이 격렬하게 분출했다면 그건 오랫동안 상대의 마음에 용암이 끓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다 어느 순간 툭 건들면 속내를 터뜨리는 게 사람이다.

조선의 왕 중에 열 명 이상의 부인을 거느린 왕은 정종 태종 성종 연산군 중종 선조 등 여러 명이다. 나름의 업적을 남겼음에도 대부분 가족 문제로 시끄럽다 보니 나라 또한 조용할 날이 없었고 백성들 또한 여느 때보다 도탄에 빠졌다.

열 여자 싫어할 남자 없다고들 한다. 구시대적 사고다. 그건 조선 시대에나 할 말이다. 아니 그 시대에도 맞지 않는 말이다. 지금은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는 시대이지만, 오히려 이 시대의 왕이 되려면 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남녀 평등한 생각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면 남자들은 간혹 자기 아내가 열 명의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예쁘고 날씬하고 자녀 잘 키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에게 잘하고 상냥하고, 요리 잘하고 거기다가 좋은 회사에 다니거나 부동산을 투자하여 돈까지 잘 버는 아내 말이다.

부부 싸움이 잦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은 그중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서, 뜻밖에 열 명은 아니더라도 서너 명의 아내를 바란다. 그리고 그 바란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이들이 의외로 많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아닐진대, 자신이 간직한 능력도 발휘하기 힘든 세상에서 어찌 그 이상의 초능력을 발휘하란 말인가. 너무 영화를 자주 봐서 그럴까. 그건 아마 가장 최근 만든 인공지능(AI) 로봇이라도 못할 것이다.

살다 보니 뭘 딱히 잘하고 살아온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온통 잘난 사람들 속에서 실수나 하고 꽁무니나 따라다니면서 용케 버티며 살아 있는 삶도 대견하다. 실상 주변에 꽤 능력 있는 이들의 삶이 회자 되고 뉴스에 대단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영화는 어마어마한 영웅들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현실 속 주인공은 대부분이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다. 무엇하나 딱히 잘하는 게 없다. 그다지 예쁘지도 용감하지도 똑똑하지도 않고 재능이나 지능이 뛰어나지도 않다. 다만 제 나름대로 성실이나 근면성 또는 인내나 끈기만 가지고 세상을 흘러가는 물처럼 순응하고 살아간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이고 우주이다. 평범한 세계이고 특출나지 않는 우주일지라도, 그러니 사람마다 각자 하나의 삶의 주체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을 전환하여 대신 도와주고 예쁘다고 말해 주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옆에서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며 살면 좋겠다. 바라지 말고 바라는 바를 해 주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이 영웅이 되고 슈퍼맨이 된다.

난 오늘 단 한 명의 아내로 충분히 감사하고 내가 열 명의 남자가 되어 살기로 했다.

기 고

1980년 5월 27일 새벽의 그들은

노영기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교수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를 지날 때마다 늘 들었던 의문이 있다. 그날 어둠 속에서 광주를 지키려다 끝내는 망월의 품으로 가신 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왜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총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들은 눈앞에서 쓰러진 이웃들을 마주했다. 어쩌면 금남로와 충장로에서 마주쳤던 사람들이 쓰러졌기에 저항했다. 개중에는 길을 가다 부딪쳐 다투거나, 때로는 식당이나 찻집·술집·당구장 등지에서 시비가 붙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게다. 그런 시민들이 눈앞에서 공수부대원들에게 얻어터져 피 흘리고, 속옷만 입은 채로 금남로에서 좌우로 굴렀다. 1980년 5월 18일 이후 광주 시내에서 펼쳐졌던 광경이다.

5월 21일 오전 광주 시민들은 정오까지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에서 물러나길 바랐다. 이날 새벽 광주역 앞에서 발견된 두 구의 시신을 앞세워 공권력의 만행을 규탄하면서도 기꺼이 공수부대원들과 함께 김밥과 빵, 음료수를 나눴다. 하지만 이내 되돌아온 것은 계엄군의 총탄이었고, 뒤이어 군의 저격수들이 시민들을 향해 조준 사격을 했다. 금남로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그들 중에는 금남로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부축하던 시민도, 전남대 부근에서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던 만삭의 임신부도, 헌혈을 마친 여고생도 있었다. 어떠한 영화보다 더 불행한 장면이 금남로 한복판에서 펼쳐졌다. 광주 시내에서 이러한 비극을 목격한 외국인들조차 함께 분노하며 광주 시민들과 손을 맞잡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민들은 무기를 찾아 나섰다. 구식 무기를 구해 온 시민들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최정예 특수부대인 '국군'에 맞섰다.

이날 오후 계엄군은 광주 시내에서 철수한 뒤 외곽 지역을 틀어막았다. 광주는 '육지 속의 섬'이 됐고, 광주 외곽 지역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됐다. 광주 외곽을 다니는 사람과 차량을 향해 군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군인들은 누가 어떤 목적에서 광주에 드나드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채소를 팔러 온 농민인지, 무서워서 광주를 떠나는 시민인지, 광주의 참상을 알리려는 시민인지, 마을에 사는 주민인지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않았다.

군이 물러간 광주는 평화와 일상을 되찾았고 전남도청 국기 게양대에는 검은 리본의 조기가 내걸렸다. 부상자들을 위해 많은 시민들은 기꺼이 팔을 걷어붙였다. 병원에 수혈 도구가 없어 헌혈자들을 돌려보낼 정도였다. 쌀을 내오고 거리에 솥단지가 내걸리고 주먹밥이 만들어졌다. 시장이 다시 열리고 시민들은 군의 만행을 규탄했다. 시민들은 질서를 회복하고 평화를 요구했으나 군에서는 '무기 반납', 다시 말해 '무조건 항복'만을 겁박했다. 탱크를 광주 시내까지 진입시키고 헬기를 띄우며 시민들을 '폭도'로 내몰았다.

군의 무력 진압을 앞둔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남도청 앞에 모였다. 항쟁 지도부는 여성과 중고생,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떠나보냈다. 모두가 두려웠고,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어둠의 끝자락에서 다시는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이다.

두렵기로는 최신 무기로 무장한 채 시민들을 상대로 '전투'를 앞둔 공수부대 특공대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게다. 이들은 '상무충정작전'을 앞두고 송정리 비행장의 격납고에서 광주 시내와 전남도청을 비롯한 주요 건물을 숙지하고 도상 훈련을 한 뒤에 '전투'를 앞두고서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냈다. 그렇게 모두가 두려워하는 어둠이 깊어 갔다.

왜, 그날 시민들은 총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아마도 지난 열흘 간이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을 것이다. 공수부대원들의 폭력과 야만, 수많은 희생, 집에 두고 온 가족과 벗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광주 시민들은 '항복'과 '저항'의 갈림길에서 무릎 꿇기를 거부했다. 그렇게 그들은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에 맞서며 '역사' 속으로 걸어갔다. 쓰러진 그들, 끌려간 그들의 죽음과 고통을 딛고 머지않아 밝음이 찾아왔다. 그날 새벽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통곡하던 광주시민들은 곧바로 가동된 분수를 끄라고 항의하며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는 그들의 간절한 마지막 외침을 되살려 냈다. 그렇게 5·18은 되살아났다.

社 說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공약 꼼꼼히 살펴야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일제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 갈이에 시동을 걸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유권자들과 접촉을 넓혀 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13일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431명을 뽑는 광주·전남에서 826명이 출사표를 던져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1.8대 1)보다는 높지만 2018년 지방선거 때의 2.3 대 1보다는 크게 낮아진 것이다.

광주시장과 광주교육감에는 각 다섯 명, 전남지사와 전남교육감에는 각 세 명이 등록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광주는 아홉 명이 등록해 1.8 대 1, 전남은 60명이 등록해 2.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민주당 강세 속에 군소 정당들이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출마자 중 45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광산구청장 박병규 후보, 보성군수 김철우 후보, 해남군수 명현관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과 병역, 납세 실적, 전과 등의 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광주·전남 전체 후보자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는 세 명 중 한 명꼴이었다. 전과 기록이 다섯 건 이상인 후보도 열세 명이나 됐다.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7억 4136만여 원이었고, 세금을 체납한 후보는 세 명이었다.

이러한 후보자 정보와 관련 통계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오는 19일부터 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24일부터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열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일꾼을 꿈꾸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공약을 꼼꼼히 살펴 투표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윤 대통령, 5·18 헌법 전문 수록 로드맵 제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들 사이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국가 기념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속적으로 5·18의 현대사적 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힌데다 특히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는 최초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직후인 지난해 7월 19일 5·18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3·1운동이나 4·19 정신에 비춰 5·18 정신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이기에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 전혀 손색이 없다"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자는 주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에도 광주를 찾아 "오월 정신이라는 것은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보는 지난 대선에서 보수 정당의 숙원이었던 '광주·전남 지역 두 자리수 득표율'을 이뤄 내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원동력이었던 5·18은 국가 권력의 폭력적 지배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 행위로서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 5·18기념재단이 지난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 대통령의 약속이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번 기념식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해 주기를 광주시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無 等 鼓

김지하

"신 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위 시는 최근 81세로 별세한 김지하 시인의 대표작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작품이다. 1975년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발표한 시로 그는 '저항 시인'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1941년 목포에서 태어난 고인은 중학생 때 강원도 원주로 이주했다. 서울 중동고를 거쳐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4·19와 6·3 사태 등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그는 숱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당대의 부조리한 현실을 문학작품을 통해 예리하게 그렸다.

1970년 지도층의 부패를 질타한 '오적'(五賊)은 풍자시의 대표 작품으로 꼽힌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일에 가담한 5인을 을사오적이라 칭한 것처럼 시인은 당시 부정부패를 일삼는 재벌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을 오적이라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민초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그러나 고인은 1990년대 들어 진보 진영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만다.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이어지는 분신자살을 질타하는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조선일보에 기고한 것이 단초가 됐다. 생명 존중에 입각한 고언의 취지였겠으나 진보 진영은 이를 '변절'로 받아들였다.

파란과 곡절의 삶 속에서 김지하의 관심은 저항에서 생명으로 변화했다. 민주화 투쟁이나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풍자는 결국 사람다운 삶, 생명 존중이라는 대의로 수렴됐을 것이다. 김지하의 세계는 표현의 방식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바뀌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변절'로 의심을 했고, 오랫동안 불화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문학평론가 채광석은 김지하의 변화를 "가장 날카로운 직선의 합이 곧 곡선"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어쩌면 곡선을 배제한 직선은 결국 부러지고 타자도 찌르는 것인지 모른다.

/박성천 문화부 부국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